



사전예약

예약 전 꼭! 확인하세요!

* 사전 예약 상품이므로 선사, 항공사 등의 사정으로 출발일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는 **미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확정 시 **재안내** 드립니다.



상품번호 NCALEP10

[블리스호] [사전예약] 알래스카 크루즈

상품가격 : 미정

여행기간 8박 10일

여행지역 알래스카

크루즈 [NCL 크루즈] 블리스호

여행기간 2022-10-07 ~ 2022-10-16

항공편
출발편 항공미정
도착편 항공미정

인쇄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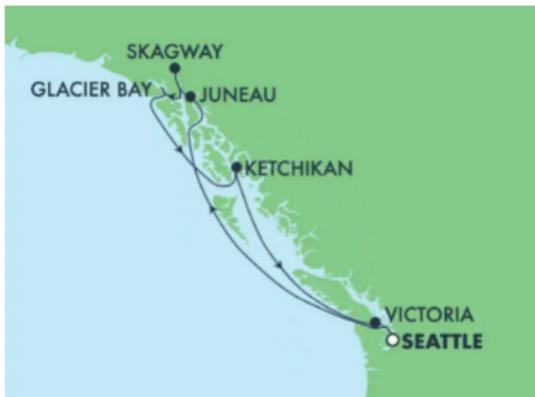
다운로드(상세+일정별)

다운로드(PDF)

◎ 상품설명

상품상세설명

① 상세설명



▣ 포함내역

[교통]

왕복 항공권, 관광지 차량비

[세금]

국내 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항만세 등

[숙박]

크루즈 선실 이용 요금

[식사]

일정표에 기재된 식사

[관광]

크루즈 부대시설 이용(일부 유료 시설 제외), 크루즈 각종 프로그램, 일정표에 기재된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 보험

[기타]

포토 앤범, 크루즈 선내팁

▣ 불포함내역

[개인 여행경비]

물값, 자유 시간시 개인 비용 등

[각종 매너팁]

테이블 팁, 객실탑, 포터비, 마사지팁 등

[추가 경비]

객실 1인 사용료, 항공 클래스 업그레이드, 크루즈내 유료 부대시설 이용요금

① 주의사항 및 준비물

[공항이용]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이용 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 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 * — * — *

【농/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비자】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 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있는 여권은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 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해외 여행이므로 여권은 필수!

모든 승객들은 하선일 기준 6개월 이상 만료일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준비 바랍니다. *여권에 친필 서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비약】



선내에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으며 의료 시설도 있으나 모두 유료이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복용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화제, 멀미 약(붙이는 것), 해열제, 지사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등의 상비약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세면도구】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크루즈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욕실에는 간단한 수건, 샴푸, 비누 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용 거품 타올, 바디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세면도구를 개별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용품】



수영복과 수영모자, 물안경은 선내 실내/실외 수영장/ 스파(유료)/ 사우나(유료)를 이용 시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바다 위를 여행 하는 크루즈! 크루즈 갑판도 햇빛! 수영장도 햇빛!
모자, 선글라스, 선 크림 등을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용품】



여행에서 카메라와 스마트 폰 충전기는 필수입니다. 크루즈 전압은 110V와 220V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기항지 관광 시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 또는 샌들 및 슬리퍼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이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복장】



크루즈 여행할 때에는 여벌 옷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크루즈에는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운동복을 하나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크루즈 내 온도는 18도로 유지 되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걸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찬 식사 시 정장 및 멋진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남성 : 셔츠, 넥타이, 정장 구두

- 여성 : 원피스 형 드레스 또는 평상시 외출복 치마나 바지 정장이면 무난합니다.

정찬 식당의 복장을 제외하면 크루즈 선내에서는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기항지 투어 이용 시에도 편한 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장, 캐주얼 복장 등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8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크루즈,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 출발 75일 정도 이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출발 74일부터 출발 51일 정도 이전까지 통보 시 : 예약금 800,000원 환불 불가
- 출발 50일부터 출발 30일 정도 이전까지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50% 배상
- 출발 29일부터 출발 16일 정도 이전까지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75% 배상
- 출발 15일부터 출발일 당일 취소 시 : 총 여행 요금의 100% 배상

[예약시 유의사항]

- 크루즈 예약은 선사 규정에 따라서 취소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니, 예약 확정 전 위의 취소료 규정 / 날짜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자명을 변경하는 경우, 철자변경에 해당되며 특히, 성과 이름이 모두 바뀌는 경우 취소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항공, 크루즈, 숙박기관의 파업, 휴업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당 여행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여행 요금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잔금은 출발일로부터 90일전까지 결제 부탁드립니다.

① 여행자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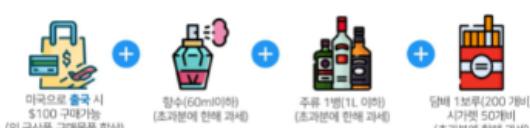
[여행자보험]

- 기획 여행의 일정이 종료되면 여행자보험도 자동 종료됩니다. 보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출발 전 예약하신 곳으로 반드시 추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상법 732조)
- 15세 미만과 79세 이상, 임산부는 보상 불가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금 추가 증액을 보험사로 개별 요청하시는 경우 개인 보험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 되며 티보보험과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됨을 양지 바랍니다).
-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입원시 10%, 통원치료시 8천원~2만원/1회당) 해외치료비 예외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 0~15세	만 15~69세	만 70~79세	만 80~84세
상해	사망후유장해	0	2억원	5천만원	2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	0	0	0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3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질병	질병·재발질병(20%까지) 도록증상	0	1,000만원	0	0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2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 국내발생 상해 &질병 의료비	입원	2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 국내발생 상해 &질병 의료비	외래	15만원	25만원	10만원	10만원
	재발조치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5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 비용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배상 책임	1,0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항공기 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비급여의료 도수/체외충격파/증식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의료 주사료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의료 자기공명진단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① 면세규정

[면세규정-미국]





[면세규정-알래스카]

현금 보유

미국입국시 현금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화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의 범위는 개인 혹은 가족당입니다. 단독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1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는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2-3명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면세가로 100불이 넘는 조니 워커 블루의 경우도 몇 병은 반입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10보루(1000개비)도 아무 문제 없이 반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시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면세규정-알래스카]

미국반입 가능 및 금지품목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 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 시 반입금지 식품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 식품	
육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 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간장, 식초 등 각종의 소스류
	과일 및 채소, 식물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 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 등 일체의 말린 과일 / 차 종류- 포장된 차 종류 /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버섯, 분쇄된 캐종류, 흉상 등 / 견과류-삶거나, 볶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등) / 가공된 식품-김치, 장아찌 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빵, 과자, 시리얼 등 기타 구운 종류, 사탕과 초콜릿, 헛반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기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묻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 까지 않은 마늘, 양파 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멸치 등 건어물, 해산물 가공물, 젓갈, 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인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백예든 한약, 절편 등 가공된 인삼류	

② 여행일정

1일차	미국
10월 7일(금)	스페이스 니들, 치흘리 가든 앤 글라스



③ 미국

- 15:00 • * 미팅장소: 인천공항 1청사 3층 여행사 테이블
 • 00:00분 OO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발 3시간 전까지 반드시 항공 체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출발 2~3일 전 인솔자가 직접 안내전화 드립니다. 미팅장소를 확인하세요!

* 사전 좌석 배정은 불가하며,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수속 창구에서 단체로 좌석이 배정됩니다. 공항 미팅시간에 늦거나, 당일 항공좌석이 만석일 경우, 일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18:1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 날짜 변경선 통과 ---
- 12:15 •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도착
- 14:00 • 가이드 미팅 후 시애틀 관광
- **스페이스 니들**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시애틀의 상징인 이 첨탑은 180m 높이의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150m 지점에는 비행접시 모양의 회전식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시애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으며, 1999년에는 역사적 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전망대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시속 16km의 속도로 41초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치흘리 가든 앤 글라스





치홀리 가든 앤 글라스(Chihuly Garden and Glass)



拉斯베가스의 벌라지오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드영 뮤지엄의 유리 공예로 유명한 시애틀 타코마 출신의 세계적인 유리공예가 데일 치홀리의 유리 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거대한 갤러리입니다. 실내 전시실과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전시실에서 200여점의 화려한 색감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8:00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 휴식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현지식

2일차 미국

10월 8일(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스타벅스 1호점

>

미국

09:00 • 가이드 미팅 후 시애틀 관광

•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파이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명소 중 하나로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이 곳의 마스코트인 돼지 동상 레이첼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물건들을 거래하는 시끌벅적한 시장의 모습과 생선 상인이 선보이는 '플라잉 피시'도 즐거움을 더합니다. 근처에 스타벅스 1호점과 껌 벽 등도 있어 함께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



스타벅스 1호점(The 1st Starbucks)



글로벌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의 첫 번째 매장으로, 재래시장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1년 개점 당시의 '사이렌' 형상의 로고와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1호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컵과 텁블러 등이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여 커피나 기념품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로 늘 긴 대기줄을 볼 수 있습니다.

- 12:00
- NCL 크루즈 블리스호 승선
 - ※ 크루즈 승선 수속 안내
 1. 수화물 체크인 : 크루즈 터미널 수화물 수속 시, 보내신 짐은 오후 6시 까지 선실 앞으로 배달 됩니다. 필요한 약, 귀중품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탑승하여 주십시오.
 2. 승선수속 : 크루즈 승선서류 + 여권을 체크인 카운터에 제시 → 승선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3. 승선 : 출국수속 후 승선 전에 선사에서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합니다.

- 16:00
- 시애틀 출발

조식 : 호텔식 중식 : 선내식 석식 : 선내식

3일차

전일항해(알래스카)

🔍 전일항해(알래스카)

- 블리스호의 다양한 시설과 선내 프로그램을 통해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블리스호

아쿠아 파크 (Aqua Park)

📍 16층


크루즈 선내에서 가장 멋진 활동 중 하나인 워터 슬라이드는 스릴이 넘칩니다. 특히 110m에 이르는 아쿠아 레이서 슬라이드는 바다 위를 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키즈 아쿠아 파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웨이 (Sped way)

📍 18~19층


바다 한 가운데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자동차 레이싱 트랙으로 짜릿한 회전과 속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초보에서 고급까지 4가지 속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아케이드 (Video Arcade)

📍 5층


비디오 아케이드에서 게임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보다 실감나는 이상한 나라로의 탐험과 7D를 통해 첨단 레이싱 코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과 흥미로운 VR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태그 (Laser Tag)

📍 20층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실감나는 레이저 태그 게임을 즐기세요! 잊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를 배경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레이저 태그 코스를 정복 할 수 있습니다.

조식 : 선내식 중식 : 선내식 석식 : 선내식

4일차

알래스카

10월 10일(월)

주노

>

❶ 알래스카

13:30 • 알래스카, 주노 도착

14:30 • 하선 후 기항지 관광

• 주노



주노(Juneau)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는 부동항으로, 1880년대 골드 러쉬로 생긴 개척 타운이며 관광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크루즈의 기항지 관광으로 유명한 멘델홀 빙하와 글레이셔 베이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빙하 관람과 연어부화장을 둘러보고, 숯불로 구운 알래스카 연어구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23:00 • 주노 출발

조식 : 선내식 중식 : 선내식 석식 : 현지식

5일차

알래스카

10월 11일(화) 스케그웨이



🔍 알래스카

07:00 • 알래스카, 스케그웨이 도착

08:00 • 하선 후 기항지 관광

• 스케그웨이



스케그 웨이(Skagway)



인사이드 패시지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스케그웨이는 인디언 언어로 '북풍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골드리시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협궤 열차를 타고 화이트 패스 루트 철로를 따라 터널과 깊은 골짜기, 폭포, 빙하로 덮여 있는 준봉 등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5 • 스케그웨이 출발

조식 : 선내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선내식

6일차

알래스카

10월 12일(수) 글레이셔 베이



Q 알래스카

- 글레이셔 베이 통과 (선내 빙하 관람)

*갑판에서 빙하를 관람하는 동안에는 비바람으로부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걸옷을 입으세요!!

- 글레이셔 베이





글레이셔 베이(Glacier Bay)



글레이셔 베이는 알래스카 주노 근처에 있는 피오르로 근처 소여빙하와 함께 야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종 이상의 어류와 조류, 곰, 산양, 물개, 고래, 독수리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며, 199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빙하로 둘러싸인 절벽들과 바다에 떠 있는 유빙, 빙하가 녹아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들로 인상적인 곳입니다.

조식 : 선내식 중식 : 선내식 석식 : 선내식

7일차 알래스카
10월 13일(목) 케치칸



🔍 알래스카

07:00 • 알래스카, 케치칸 도착

08:00 • 하선 후 기항지 관광

• 케치칸



케치칸(Ketchikan)



알래스카의 첫 번째 도시로 알려져 있는 케치칸은 인사이드 패시지를 따라 펼쳐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연어의 도시로 불릴만큼 연어 어획량이 많아 연어 통조림 공장이 발달했으며, 목재업, 광산업, 펄프가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7도로 온난하며, 지명은 인디언 언어로 '독수리의 펼친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13:15 • 케치칸 출발

조식 : 선내식 중식 : 선내식 석식 : 선내식

8일차

캐나다

10월 14일(금) 빅토리아



Q 캐나다

19:00 • 캐나다, 빅토리아 도착

20:00 • 하선 후 기항지 관광

• 빅토리아



빅토리아(Victoria)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도로, 벤쿠버 섬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기후를 가진 관광과 휴양의 도시로,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들이 많고, 낚시가 좋은 여름에 과과객이 모리느 곳입니다. 지면은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23:59 • 빅토리아 출발

조식 : 선내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선내식

9일차 미국

10월 15일(토) 하이렘 운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앤 테이스팅 룸



🔍 미국

06:00 • 워싱턴주, 시애틀 도착

08:00 • 하선 후 가이드 미팅 & 시애틀 관광

•

하이렘 운하



하이렘 운하(Hiram M. Chittenden-Ballard Locks)



1916년 하이램 마틴 치텐덴 소령에 의해 건설된 이 운하는 퓨젯만 바다와 워싱턴 호수와 유니언 호수를 연결하는 배들의 이동통로로, 배가 수문으로 들어오면 수위를 맞추어 수문을 열어 배들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년 여름 산란기를 맞은 연어들이 이동하도록 계단식으로 만든 피시레더에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앤 테이스팅 룸(Starbucks Reserve) ☺☺

2014년 시애틀에서 처음 선보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으로, 400여평 규모의 매장내에는 초대형 로스팅 기계에서 로스팅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커피빈을 선택하고 볶는 시간과 추출 방식도 직접 선택하여 다양한 커피를 테이스팅 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베이글, 샌드위치 등 빵을 즐길 수 있으며, 여러가지 커피빈과 기념품들을 구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11:00 •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 13:55 •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출발
 • --- 날짜 변경선 통과 ---

조식 : 선내식 중식 : 한식 석식 : 기내식